

올해 수능, 이과 교차지원 힘 빠지나 확통 상위권 확대에 문과 우위 뚜렷

문과 경쟁력 강화로 정시 구도 변화
확통 선택 증가로 상위권 비중 확대
미적·기하 1등급 비율 79.3% 하락
문과 상위권 학생 증가로 경쟁 심화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확률과 통계(확통) 선택자와 상위권이 대거 증가하면서 지난해까지 이어진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우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통합수능 체제에서 미적·기하 선택 이과생은 높은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문계 학과 정시에서 강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1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미적분·기하가 수학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5학년도 92.3%에서 2026학년도 79.3%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적분·기하가 수학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2학년도 85.3% △2023학년도 81.4% △2024학년도 93.1%로 최근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2026학년도에는 70%대 후반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급증해 문과 상위권의 비중이 확대됐다.

수능 점수자 수에서도 확통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반면, 미적분은 15.0% 감소, 기하도 소폭 감소했다.

올해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자에서도 인문계 지원자는 전년 대비 3만4561명 증가해 문과 학생 풀이 두터워졌다. 수능 가채점에서도 확통 선택 상위권이 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서울 여의도여고 관계자가 교문을 닫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5학년도까지 이어진 '이과생의 문과 정시 강세'가 올해 다소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만 해도 대학 인문계 합격자 중 △한양대 87.1% ▲서강대 86.6% ▲건국대 71.9% ▲서울시립대 66.9% ▲성균관대 61% ▲중앙대 53.8% ▲국민대 71.7% △경희대 46.6% ▲인하대 38.6% 등이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 일부 학과는 합격자 전원이 미적분·기하 선택자였을 만큼 이과 우위가 뚜렷했다.

하지만 올해는 확통 고득점자가 대폭 늘어 문과 학생 자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이과생의 교차지원 합격률이 전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과생 자체가 증가했고, '사탐린'에 따른 사회탐구 고득점자도 늘어나 인문계 학과의 정시 경쟁은 지난해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문과 지원자가 크게 늘어

난 데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층까지 두터워지면서, 이러한 두 요인이 맞물려 올해 인문계 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현재 확률과 통계 수능 점수자가 크게 증가했고, 수학에서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도 확률과 통계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져 올해 정시에서는 순수 이과생들이 문과에 교차지원 해 합격하는 비율이 줄고, 문이과 완전 무전공 선발 전형 등에서 이과생보다 문과생 합격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과생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문과 학과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2027학년도에는 통합수능 마지막 해로, 사탐 고득점자 증가와 확통 응시 확대로 문과 중심의 상위권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용산서울코어’ 10년 만에 첫 삽 뜬다

입체복합도시로 서울축 재편
내년 말 주택분양 속도전 예고

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거점으로 개발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가 계획 10년만에 첫 삽을 뜬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도심 3축(광화문·여의도·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국가적 도시혁신프로젝트의 본격 도약을 알린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연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일대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이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 45만 6099㎡ 구역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도로와 공원 등 2028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관련 행

정절차 이행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오는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끝으로 착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끝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내년 말 주택분양' 신속 추진

신속한 주택공급에도 힘쓴다. 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을 발빠르게 추진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업무기능 유지 및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주택공급량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 도심 내 택지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 3000호(지구내 6000호, 주변 7000호)에 더해 확대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화성·평택·판교 중심 미래차 클러스터 육성

경기도, 내연전환 지원 강화 추진
혁신 생태계로 친환경 전환유도

경기도가 화성과 평택,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첨단 자동차(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첨단자동차 클러스터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도는 성공적인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첨단자동차 밸류체인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친환경차 진입지원 등 크게 세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첫째로 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해 있는 화성과 평택을 미래차 부품산업 거점으로, 성남 판교를 소프트웨

어 거점으로 하는 첨단자동차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일명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가솔린, 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기업을 전기, 수소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세 번째, 경기도는 도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개발과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환경차 진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2023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사업화 과제지원에 20개 사,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에 4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 학생, 자연에서 배우는 ‘농촌 유학’”

서울시교육청, 새 학기 참여자 모집
전남·전북·강원·제주·인천 참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6학년도에는 기존의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인천광역시도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잇는 배움의 장이 더욱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머물며 자연과 함께 배우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도·농상생형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추진된 농촌유학은 참여 규모가 매 학기 꾸준히 증가해, 2025년 2학기에는 총 443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88.4%, 추천 의향은 89.9%로 나타났으며, '생태 감수성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91.3%로 조사됐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이며,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농가 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와 함께 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3가지가 있다.

농촌유학 참가 학생에게는 지역별 기준에 따라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교육청 및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강원·전남·전북·제주·인천 농촌유학 누리집

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경비 지원은 2026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은 12월 1일 12시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12월 8일 각 시도교육청 농촌유학 누리집에서 가배정 결과를 확인한 뒤, 사전 방문(12월9일~12.15일)과 최종 신청(12월16일~12월18일)을 거쳐 12월 23일 최종 확정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학생들이 자연을 교실로 삼아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고, 학생들이 삶의 균형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우크라 “러 시베리아횡단철도 공격… 北 무기 공급 저지”
▲中항공사 “日 항공권 무료 취소”… 중·일 갈등 격화
/사진 뉴스스

▲“동남아 여행, 신경쓰이네”… 캄보디아 여파로 출국자 수 한 달 새 7% ↓
▲푸틴 주말 네타냐후에 전화… 가자 정전 관련한 회담

▲가자 민·관 자원봉사단 출범, 가자시티 잔해 청소와 재건 시작
▲영국 인기 해변서 ‘상습 성추행’… CCTV 공개로 수사 확대